진실을 경험하라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N TECHNO UNIVERSITY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781호 1판 (음력 6월 18일) 2014년 7월 14일 월요일

‘흉물이 된 랜드마크’ 전일빌딩의 애환

문화전당 완공 코앞인데 활용방안 확정 못해 방치 리모델링 공사 서둘러야

지난 1968년 준공 이후 40년이 넘도록 5·18민주화운동 등 광주 현대사의 중심에 있던 전일빌딩(점선)의 리모델링 계획이 방치되면서 도심 속 흉물이 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의 ‘랜드마크’ … 전일빌딩 50년

1968년	2011년	2013년	2014년
7층건물로 준공 3차례 증축 5·18민주화운동 겪은 역사적인 건물	광주시, 문화전당 건립 맞춰 빌딩건물 허물고 지하 주차장·지상 공원 활용계획 발표	리모델링 결정 ·종합미디어센터 ·빛고을문학관 ·예술창작스튜디오 (사업비 135억·공사기간 1년6개월)	민선6기 들어서 리모델링 논의 없어 1층 KEB 외환은행 자체 리모델링 공사 광주도시공사 “내년 9월 전당 개관까지 완공 불가능”

5·18민중항쟁과 80·9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 현장을 지켜온 ‘전일빌딩’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심 속 흉물로 변하고 있다.

광주시가 민선 6기 들어 서둘러야 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의 중요 외곽시설인 ‘전일빌딩’ 리모델링 계획을 중단하면서 내년 9월 문화전당 개관 시점에도 전당 앞 흉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리모델링 기간이 최소 1년 넘게 소요되지만 전일빌딩 소유주인 광주시가 시민 협의 등을 거쳐 종합미디어센터와 빛고을문학관, 예술창작스튜디오 등 3개 시설로 압축해 놓고도 반년 넘게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 5·18 당시 총탄 자국이 있는 전일빌딩은 광주 현대사와 함께 금남로 1가 1번지에 위치하며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맡아온 건물로, 문화전당 건립과 함께 허물고 주차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시민 반발로 일부 존치 결정이 내려진 뒤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11월 1, 2차 전일빌딩 활용방안 민관협의회를 통해 전일빌딩 2만2470㎡ 중 1만2105㎡만 존치하는 안을 마련했다. 존치건물은 지난 1974년 건립한 지하 1～

5·18과 한국 민주화운동 지켜본 역사적인 건물 문화전당 주차장 활용 헐릴 위기…시민반대로 존치 종합미디어센터·문학관·창작스튜디오 활용 추진

지상 10층(1층 외환은행 포함)으로, 리모델링 사업비는 철거 10억 5000만원 등 135억원이며 공사기간은 1년 6개월이다.

당시 민관협의회에서는 리모델링된 전일빌딩에 청소년 등의 언론교육 장소 및 미디어 산업 발전 공간, 신문박물관 등을 담은 종합미디어센터와 지역 문학인들의 역사 등을 결집하는 (빛고을)문학관, 문화전당에서 활동할 국내외 예술인의 거주 창작공간인 예술창작스튜디오 등 3개 시설이 들어서는 안으로 압축했다.

하지만 시는 이후 민관협의회를 열지 않고 있으며, 윤장현 광주시장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968년 7층 건물로 들어선 뒤 광주의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해온 전일빌딩은 3차례의 증축에 이어 완공 40년이 넘어서면서 건물 내외벽의 균열이 발생해 수리·보수가 시급한 상태다. 민선 5기 때는 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건물을 허물고 주차공원화하는 이른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후 광주시민의 거센 반발로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일부 존치 후 리모델링하기로 했으나, 논의 자체가 지난해 11월 이후 반년이 넘도록 중단되면서 건물 내외부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페인트 등이 벗겨지는 등 도심 속 흉물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건물 외관 공사시 광주시와 디자인 등을 협의하기로 했던 전일빌딩 1층 KEB외환은행은 자체적으로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전일빌딩 리모델링 공사에 나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광주시의) 활용방안이 중단된 이후 대기중인 상태”라면서 “지금 공사를 해도 내년 9월 전당 개관일까지 공사일정을 맞추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연 광주시문화관광정책실장은 “조만간 있을 시청 인사에서 담당(간부나) 직원들이 바뀔 것으로 보여 인사 후 업무를 재추진할 방침”이라면서 “서두르면 전당 개관까지 (전일빌딩의) 리모델링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독거노인 무료개안 수술을 위한 자전거 투어
8월 4일(월)~5일(화) 062)605-1128
광신대학교

단체장에 듣는다
민형배 광산구청장 ▶5면
강진원 강진군수 ▶11면

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
삼례문화예술촌 ▶18면

쌀 개방시 관세율 400% 안팎될 듯

80kg 한 가마니 국내산 17만원선·수입산 30만원대 전망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싼 정부와 농민단체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개방 불가피’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가 400% 안팎의 관세율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400%의 관세율 적용 시 한국 쌀은 한 가마니(80㎏)에 17만원선인데 반해 수입산은 30만원대로 높아져 한국 쌀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리한 관세율이 적용되는 건 WTO 협정이 1986～1988년에 거래된 국내 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만큼 관세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국내와 외국의 쌀 가격 차이가 5～6배 정도 차이 났는데, 현재 가격 차이가 2.1～2.8배 수준으로 축소된 상태에서 국제 쌀 가격이 오름세여서 ‘400% 관세율’은 한동안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쌀 개방시 이러한 관세율이 적용되면 국산 쌀 한 가마니는 17만5086원인데 비해 미국산을 기준으로 수입산 가격은 (2013년 국제 쌀 평균가격 6만3303원+관세)은 31만6516원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열린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쌀 시장 개방 시기와 개방 시 관세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할 것이냐가 뜨거운 쟁점이 됐다.

■ 쌀 개방시 국산쌀과 수입쌀 가격
(2013년 기준, 80㎏당)

국산쌀 17만 5086원

수입쌀 31만 6516원

※ 수입쌀은 미국산 기준
(국제쌀 평균가격 6만3303원+관세)

이날 자리에서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우리와 필리핀 외의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은 쌀 관세화 조치를 했다”면서 “의무면제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해도 한시적일 뿐 결국 관세화해야 한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국제시장 상황에 따라 앞으로 수입쌀이 더 싸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가 향후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등에서 쌀 관세율을 낮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관세화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며 모든 것을 단념한 관료들이 협상 자리에 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농민대표 등이 참가하는 범국민 협상단을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7·30 재보선 경쟁률 광주 5대1, 전남 3.3대1

4개 선거구 15명 등록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등록 결과 광주와 전남지역 4개 선거구에 모두 15명이 등록을 마쳤다.

13일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이틀간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는 새누리당 송환기,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통합진보당 장원섭, 정의당 문정은, 무소속 양청석 후보 등 모두 5명이 등록해 5대의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관련기사 3면〉

순천·곡성 보궐선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정현, 친(親)노무현계인 새정치민주연합 서갑원, 통합진보당 이성수, 무소속 구희승·김동철 후보 등 5명이 등록을 마쳤다.

나주·화순 재선거에는 새누리당 김종우, 새정치민주연합 신청훈, 무소속 강백수 후보 등 3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담양·함평·영광·장성 보궐선거에는 새누리당 이중효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후보 2명이 등록해 양자대결이 이뤄지게 됐다.

한편, 이번 선거는 광주·전남 4곳을 포함해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을, 수원병, 수원정, 평택을, 김포 ▲부산 해운대·기장갑 ▲대전 대덕 ▲울산 남구을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등 15곳에서 치러진다.

공식선거운동은 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6일 후인 17일부터 선거일 직전 자정까지 13일 동안 벌일 수 있다. 사전투표는 25～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지며, 본 투표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